

영적 상징과 꿈 <31>

부제: 상징으로 본 선문답



<김홍도, 나귀 거꾸로 타다(果老倒騎圖)>

지난 글 <영적 상징과 꿈 30, 헌화가(獻花歌)>에서 우리는 노인이 쥐고 있던 고삐를 놓은 순간 그 소가 코뚜레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로 화하는 이치를 살펴 보았습니다.

본래 '콧구멍 없는 소'는 경허 선사를 단박에 깨치게 한 말로 유명합니다. 해서 이번에는 '콧구멍 없는 소' 이 한 마디가 어떻게 경허를 깨부수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콧구멍 없는 소, 경허를 깨우다

경허(鏡虛)는 조선 후기, 꺼져가던 선불교(禪佛敎)의 불씨를 되살린 불가(佛家)의 거목입니다. 이미 동학사에서 조선 최고의 불교 경학 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전국의 학승들의 추앙을 받으며 나름 높은 경지의 스님이라 자부하던 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창궐하던 콜레라로 쓰러진 주검들을 보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기에 급급한 자신의 모

습을 마주하고는 그저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동학사로 돌아온 그는 모든 지위를 버리고 "려사미거 驢事未去 마사도래 馬事到來"를 화두로 삼아 필사의 정진에 들어 갑니다.

치열하게 화두(話頭)와 씨름하고 있던 어느 날, 경허의 귀에 옆방에서 어린 중들끼리 '소가 되어도 고삐 풀을 곳이 없는 소가 되면 된다.(倒牛無鼻孔處)'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깨치게 됩니다. '코에 구멍이 없는 소(牛無鼻孔)'라는 말이 어떻게 경허를 깨닫게 했을까요?

이전 헌화가(獻花歌)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콧구멍 없는 소' 이 한마디에 단박에, 오히려 경허보다 먼저 깨쳐 스스로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 음메~ 하고 큰 소울음 소리(牛聲)를 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콧구멍 있는 소, 즉 코뚜레에 코를 꿰인 소가 야상(我相)에 사로잡힌 채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자성(自性),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의 상징이라면 반대로 콧구멍 없는 소는 코뚜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자성(自性), 마귀 육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콧구멍 없는 소는 경허가 그토록 갈망하던 대자유, 해방된 자신의 자성(自性)을 상징하였던 것이지요.

혹여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시 경허가 붙잡고 있었던 화두(話頭)를 함께 파해(破解)해 보면 쉽게 전후 사정을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콧구멍 없는 소'란 말은 그가 잡고 있던 화두(話頭)를 깨는 결정적 열쇠이자 방아쇠였음이 틀림없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삶으로 변한 결과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피곤하고 고독하며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짐승들이 사는 이 세계는 진리를 상실한 암흑시대일 수밖에 없으며, 강대국들의 횡포에 의해 지구촌에 평화가 상실되었고,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

밀실, 선문답의 성지!?

여기서 잠깐, 선문답은 아시다시피 불교 특유의 수행법입니다. 당시에는 마귀 마음, 마귀 신을 직접 깰지어낼 하늘의 사람이 없었기에, 일단 인간적 망념을 묶어 꼼짝달랴 못하게 정지시켜보려는 방편으로 고안된 것이 화두(話頭)입니다.

화두나 선문답을 키즈 풀이 같은 알음알이나 지적 유희 수준으로 깰잡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시대적 한계, 영적 한계를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본질적으로는 의식의 나를 묶어세우려는 족쇄로 등장한 것이 화두이며, 껌테기를 벗지 못한 제자와 그것을 두들겨 벗겨내려는 스승간의 피 튀기는 싸움의 기록이 바로 선문답(禪門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인간 마음속에 숨은 마귀를 그대로 보아내고 쫓아냈습니다. 제단 분들이라면 밀실의 해와 이간자가 인간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일일이 지적하고 두들겨 부수었던 역사를 아실 겁니다.

예(例)로, 말정히 수행하고 있는 제자에게 "전기세를 훔쳐간 도둑놈아!"라고 몰아붙였던 해와 이간자와 조희성님의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에피소드를 '전기세 화두' 편으로 따로 정리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공안(公案), 선문답이 됩니다. 말하자면 전기세 화두(話頭)입니다.

또 한밤중에 느닷없이 쌀가마니를 훔쳐 오라 명령해서 겨우 겨우 쌀가마니를 훔쳐왔더니 "이 도둑놈아, 누가 도둑질을 하래! 빨리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와!"라며 다그치는 장면은 쌀가마니 화두, 쌀가마니 공안(公案)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마귀 입장에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맹해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장면일 뿐이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당하고도 또 지당한 장면입니다.

인간 조희성은 하나님의 신을 가두고 있는 마귀이니 도둑놈이라 한 것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말한 직설

중의 직설이요, 말 그대로 직지인심(直指人心)입니다.

불교에서 직지인심(直指人心)을 말하고는 있으나 실제 사람 마음속의 마귀, 마음속 하나님을 여실히 짚어내고 드러낸 자는 없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이간자는 어쩌면 그 어떤 선사(禪師)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선사 중의 선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실의 해와 이간자와 제자 조희성님의 에피소드들은 선문답, 공안(公案)의 극의(極意)이며 완성본입니다. 이전의 선문답들은 그저 밀실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자요 묘사(摹寫)였을 뿐입니다.

나귀의 일, 말의 일

어느 때 한 제자가 영운지근(靈雲志勤) 선사에게 물었다.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나귀의 일도 다 끝났지 않았는데, 말(馬)의 일을 끌고 왔구나."

자, 다시 경허의 화두로 돌아왔습니다. '려사미거 驢事未去, 마사도래 馬事到來' 나귀의 일이 가기도 전에 말의 일이 왔도다.'

이것이 당시 경허가 붙잡고 있던 화두입니다.

이 화두는 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기에 '콧구멍 없는 소' 그 한마디에 곧바로 타파(打破)되고 말았을까요?

이 화두(話頭) 또한 영적 상징의 체계 안에서 볼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귀는 제 몸보다도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종일 강경대며 일하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온갖 알음알이로 무장한 채, 그저 인간나, 마귀 종인 채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다고 용을 쓰고 있는 자의 상징입니다.

이 나귀는 실은 마귀가 주는 온갖 생각과 망념에 코를 꿰어 휘둘리고 있으면서 도제 생각, 제 감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가련한 인생들의 상징입니다.

그는 인두껍을 뒤집어 쓴 채 성불하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며 애를 쓰는 마귀일 뿐입니다.

반면 말은 갈기를 휘날리며 초원을 누비는 자유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말은 천마지우(天馬地牛), 하나님의 신입니다.

자, '려사미거 驢事未去, 마사도래 馬事到來' 깨치지 않은 제자가 스승 앞에서 불교의 대의, 하나님의 일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두껍을 뒤집어쓴 마귀 종일 뿐인 자가 불법(佛法)을 논하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치를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가소로운 모습에 스승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어, 산더미 같은 무지와 알음알이, 자존과 열등을 제 등에 잔뜩 이고 지고 있는 나귀 주체에 거창하게도 말(馬)의 일, 부처의 일을 물고 왔구나? 그 짐을 다 내려 놓거라. 나귀의 탈조차 벗어 놓거라. 흑아느냐, 나귀가 말이 될지."

나귀는 나귀의 일을, 말은 말의 일을 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나귀가 사라져야 말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나귀가 바로 코뚜레에 코를 꿰인 소, '콧구멍 있는 소'요, 말이 곧 코뚜레를 벗어던진 소, '콧구멍 없는 소'입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들은 경허는 드디어 자신의 화두(話頭) 속의 나귀와 말의 정체를 눈치채버렸습니다. 화두 속에 갇혀있던 나귀도, 말도 펄떡펄떡 살아 날뛰기 시작합니다. 종내는 나귀도 말도 화두(話頭)를 찢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경허는 이제 자신이 나귀임을 알았고, 말(馬)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짐을 벗고 날뛰는 나귀가 되었고 자유로운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코뚜레 없는 소가 되어 음메~하고, 음마~하고 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허(鏡虛)가 불가(佛家)의 관례를 깨고 스스로 범명을 '깨달은 소', 성우(桴牛)라고 지은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우(桴牛)는 牛+桴+牛 이니, 어쩌면 성우(桴牛)는 음마 소(牛)인 빛나는 별(星), 조희성(星)님의 마음(牛)을 닮은 송아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金輝 / 의사 kimtaek8@nate.com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light of the human body is life 사람 몸의 빛은 생명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본래 빛의 신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 Light comes out of the human body because humans were originally God of light.

그런고로 생명의 신인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빛이 나오는 것이다.

▶ Therefore, because God, the God of life, is in the human body, the light of life comes out of the human body.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빛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 All things in the world are alive because of the light of God.

생명의 원천체가 되는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지구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 Life exists only on Earth because humans, who were God, the source of life, live on Earth.

사람으로부터 발산되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다.

▶ All living things live because of the light of life emanating from a person.

그런고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빛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 Therefore, when humans become God, human beings can transform into light.

빛으로 화하면 현재의 사람의 형상은 없어진다.

▶ If humans transform into light, the current human form will disappear.

완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되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 If humans are completely turned into God, they can live forever.*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짐승이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필자는 국제신인류문화학회(회장 한강현)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여러 석학들이 정성껏 준비한 발표 논문을 경청하였다. 지난 토요일(11월 19일) 발표장소인 덕성여대로 가는 인사동 길목은 플라타너스 나뭇잎으로 가을냄새를 듬뿍 풍기고 있었다. 바람에 휘몰려 다니는 가랑잎 사이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한가롭게 느껴지는 것은 주말이기 때문일까. 오랜만에 서울나들이에 신선함이 느껴졌다.

'신인류시대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티브이에서 동양철학 강의로 자주 보였던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좋은 내용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중 이 교수의 'K철학의 세계사적 의미'라는 기초 발표 내용이 참 감명 깊어서 이 자리에 소개하고 싶다.

이기동 교수는 세상에선 본질(진리)을 아는 사람과 본질을 잃은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후자는 모두를 남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본질을 아는 사람을 선비, 군자, 불보살이라고 하고 후자를 짐승, 소인, 중생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본질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서구 근세 문화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 짐승으로 변했다고 갈파했다.

이렇게 짐승의 삶으로 변한 결과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피곤하고 고독하며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짐승들이 사는 이 세계는 진리를 상실한 암흑시대일 수밖에 없으며, 강대국들의 횡포에 의해 지구촌에 평화가 상실되었고,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

한 사회가 되었고, 환경 파괴로 인해 인류 절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석가나 예수, 공자와 같은 성인이 다시 탄생한다고 해도 그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진리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구세주가 출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각 종교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각 종교철학의 틀 속에서 정리된 진리이므로, 특정 종교의 진리관을 가지고 다른 종교의 진리관을 포함하기 어렵다면서 오늘날의 불교는 반 석가적이며, 기독교도 반 예수적이고, 유교도 반공자적이라고 혹평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분열된 세계인의 정신을 하나로 융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진리관을 포함하는 '하나님 본질'을 찾아내야 하는데 천부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본질'

이 바로 그 '하나님 본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기동 교수의 발표 내용이 어찌보면 그렇게 승리제단 교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지 놀라웠다. 사실 조희성님께 서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학문(學文)이 없었다고 말했게 오셨다. 여기서 학문이란 글월 문(文)을 쓰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학문의 사전적 정의는 서경, 시경, 주역, 춘추, 예(禮), 악(樂) 따위의 시서·육예를 배우는 일이다.(네이버 백과사전) 다시 말하면 사사삼경의 근본 내용을 배우는 것이 학문이다.

이기동 교수의 강의를 듣고 느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미 구세주가 출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사는 수도자들이 승리제단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이 울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뿜어놓는 거라는 승리제단의 교리가 최고의 진리이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높은 차원의 진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